





이인에스앤지 고성호 대표

문화 콘텐츠형 도시 개발을 위해

여기저기서 도시 개발이 한창이다. 신도시를 비롯해 재개발, 재건축, 산업 단지 등 전 국토가 개발에 열심이다. 하지만 개발 목적이나 입지에 상관없이 어디를 가든 똑같은 빌딩, 아파트, 시스템들뿐이다. 이러한 개발 방식으로는 도시 경쟁력을 더 이상 찾기 힘들게 됐다. 새로운 시각과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프로젝트 개발을 하고 있는 이인에스앤지 고성호 대표를 만났다. 에디터 하유정 사진 이종규

이인에스앤지는 PDM(Project Design Management) 전문 기업이다. 땅을 개발해 건물을 설계하고 그 건물의 내부 인테리어와 디자인, 운영조직과 시스템까지 건설팅해주는 일을 한다. 한마디로 부동산 프로젝트의 토털 코디네이션을 서비스해주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생소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활성화된 분야다.

고성호 대표가 PDM 전문 기업을 만들게 된 데는 '사회적 디자인'을 추구하는 그의 디자인 철학에서 연유한다. 더 이상 도시 디자인이 특정 집단만의 이익을 위한 전유물이나 개발 논리로만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고. 또한 도시 개발은 무한 성장, 혹은 개발 이익의 극대화를 넘어서 문화적 콘텐츠를 개발하는 새로운 개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말한다.

세계는 이러한 패러다임으로 변하고 있다. 작은 섬이었던 나오시마에 가면 미술관과 호텔을 결합시킨 안도 다다오의 베네세 하우스가 있다. 이곳에서는 앤디 워홀, 데이비드 호크니, 리처드 롱 등 현대 미술계 거장들의 걸작만을 모아 여느 여행지에서는 느낄 수 없는 문화·예술적 정취를 느낄 수 있다.

또 모네를 위해 지었다는 안도 다다오의 지중 미술관은 그 건축적인 완성도만으로도 훌륭하지만 모네, 제임스 터렐, 월터 데 마리아의 작품이 기존의 평면적인 전시 개념을 탈피한 공간적인 개념의 전시로 구현됨으로써 건축과 어우러진 극적 효과를 자아내고 있다. 섬 전체가 거대한 미술관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다. 또한 세계 도시들은 유명 박물관과 뮤지엄을 유치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도시들이 미술관과 박물관, 유명 건축가의 작업 등으로 경제적 부흥을 이루어내기도 했다.

이처럼 우수한 문화 콘텐츠는 도시로 사람을 모이게 하고 그 도시의 문화적 위상을 높일 뿐 아니라 경제 유발 및 고용 창출이라는 경제적 파급 효과까지 가져옴으로써 그 지역민으로 하여금 자긍심을 갖게 하는 등 많은 기대효과를 가진다. 하지만 우리의 도시 개발은 장기 비전을 가진 문화적인 개발보다는 경제 원리에 입각한 성과 위주의 개발 방식이 전부였다.

부산이 고향이기도 한 그는 말한다. “부산에 주상복합을 짓는데 서울과 똑같이 지어놓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부산의 지역적·자연적 특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말입니다. 부산은 휴양적 특성이 있는 도시여서 주상복합을 짓더라도 리조트 성격을 갖춰 옥실에서 바다가 보인다든지, 쉴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만드는 등 부산만의 디자인을 개발해야 하는 거죠.” 획일적인 디자인으로는 그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살려내지 못한다는 말이다.

현재 이인에스앤지는 하나하나씩 이러한 작업들을 해나가고 있다. 부산 수영구 망미동 수영강변 일대 작은 집들이 문화공간으로 서서히 탈바꿈하고 있는 것. 수영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센텀시티의 초고층 빌딩 숲과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이른바 '슬로 디스트릭트(Slow District)'. 말 그대로 느린 변화를 꿈꾸는 도시 프로젝트다. 15년 동안 3단계에 걸쳐 망미동 일대에 있는 50여 채의 주택과 공장을 자연 발생적인 문화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지자체가 개입하지 않는 순수한 민간 차원의 프로젝트다.

나오시마를 비롯해 구겐하임 미술관이 있는 빌바오 등 세계의 많은 도시가 그러했듯이 우리나라의 도시 개발 또한 경제를 희생시켜 줄 새로운 문화적 콘텐츠가 있는 개발로 희망을 가져다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